"목숨 건 조선소 작업 못해"

노조원들 "안전관리 자율평가 폐지·사업주 구속수사" 촉구

현대삼호重 등 노조 대표 내일 노동부 항의 방문

최근 전국 주요 조선소 내 작업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조선소 근로자들이 당국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 발생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일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에 따르면 대우조선노조·현대삼호중공업지회·STX지회·SLS지회 등 조선업종분과 대표자 30명은 4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임태희 노동부장관을 항의 면담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모든 조선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관리 자율평가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한편 ▲사업주 처벌을 위한 구속수사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조선소 등 작업현장의 안전관리를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평가토록 하는 현행 제도가 안전사고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대두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앞서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지난달 29일 작업 중 질식 사고〈**본보 1월 26일자 6면**〉 직후 노동부 목포지청을 항의방문했다. 또 금속노조는 지난달 27일 서울 KBS 88 체육관에서 대의원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선소 구조조정 철폐 및 중대 재해 근절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금속노조가 단체 행동에 나선 이유는 조선소 작업장 내 중대재해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 달 동안 현대삼호중공업과 대우조선소, SLS에서 모두 5건의 가스폭발·추락사고가 발생,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3년 동안 조선소 작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점도 이들을 단체행동에 나서게 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대삼호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계에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144명(2007년 46명, 2008년 45명, 2009년 53명)이 작업 중 숨졌다. 평균 7.6일에 한 명 꼴로 작업 도중 중대재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김동연 교육선전부 차장은 "작업현장도 열악한데, 안전관리 자율평가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 되레 중대재해사고가 늘고 있다. 이는 사측의 자의적인 평가 방식에 따른 불합리한 제도로 폐지돼야 마땅하다"면서 "사업장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노동부가 직접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 조선업종분과 대표자들은 노동부 항의 면담 추이를 지켜본 뒤 오는 24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안전관리 자율평가 프로그램=노사가 자율적으로 작업현장의 안전수준을 평가하고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나서 중대 재해를 줄이는 제도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평가에 따라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안전보건 지도와 관리·감독이 면제되고 사용자 측이 안전관리 수준을 자체 평가토록 해 산재사고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주여성 "한복 어울리죠?" 2일 오후 광주시 남구 월산동 금호평생교육관에서 열린 '이주여성 설 명절체험 한마당'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한 이주여성이 예절강사로부터 옷고름 매는 법을 익히며 활짝 웃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서 2인조 편의점 강도

2일 새벽 2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하남공단 내 모 편의점에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2인조 강도가 침입, 종업원 심모(17)군을 둔기로 때린 뒤 현금 56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편의점 CC(폐쇄회로)-TV에 찍힌 범행 장면을 토대로 키 170㎝가량의 20대로 추정되는 2인조 강도를 쫓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조선소 작업현장 중대재해 왜 많나

밀폐공간·고공작업 많아 안전사고 위험 상존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소 작업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우선 조선 작업장은 밀폐된 공간과 위험한 고공(高空)작업, 좁은 통로 등의 특성으로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조선소에서는 상선(商船)·벌크선(bulk carrier)·컨테이너선(container船) 등을 만드는데, 중량이 작게는 4만t급, 크게는 31만t급에 이르러 넓은 작업장에 비해 안전관리요원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아 사고발생 우려가 높다.

이산화탄소(CO_2)·아르곤(argon)·질소(N) 등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크레인 등 중장비를 자주 취급하는 점도 안전사고를 불러오는 요인이다.

조선업 사업장 안전관리 자율평가 하나마나

객관성 갖춘 외부기관 엄격한 지도감독 필수

조선업 안전관리 실태를 사업장 스스로에게 평가토록 하는 '안전관리 자율평가 프로그램'운영이 사고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갖춘 외부기관의 엄격한 안전관리와 지도감독이 필수적이지만 조선업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자율평가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조선업계 노동자들은 이 제도 도입 이전처럼 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사고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조선 작업과정에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많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하청업체의 경우 작업 물량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작업량을 늘리다보니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대삼호중공업 내 사내 협력업체는 대략 30개 업체. 재하청업체는 정확한 실상 파악조차 안 된다는 게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의 설명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대형 마트 3층 난간 뚫고 승용차 추락

순천서 3명 '구사일생'

순천의 한 대형 마트 3층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건물 난간을 뚫고 지상으로 추락, 운전자 등 탑승객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순천소방서에 따르면 2일 오후 3시3분께 순천시 풍덕동 한 대형 마트 3층 주차장에서 허모(여·51)씨가 몰던 테라칸 승용차가 운전 부주의로 주차장 난간을 뚫고 지상으로 추락했다는 것이다. 이 주차장 난간은 높이 1m의 철제 구조물로 평상시 추락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 승용차는 추락하면서 건물 밖 지상에 세워져 있던 에어컨 실외기 고정용 구조물과 보닛 부분을 먼저 부딪쳤으나 그 충격으로 차체가 서서히 기울며 꼬리 부분부터 땅에 처박혔다.

허씨 등 탑승자 3명은 25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순천소방서 119 구조대원은 "차가 3층에서 곧바로 지상으로 떨어졌다면 탑승자들이 크게 다쳤을 것"이라며 "차가 추락하다 충격이 한번 걸러진 덕분에 목숨을 건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간질 발작 어머니 홧김 살해

광양경찰, 패륜 아들 영장

광양경찰은 2일 간질 환자인 친어머니를 홧김에 살해한 권모(39)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광양시 광영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던 어머니 윤모(69)씨가 간질로 발작을 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권씨는 발작을 일으킨 윤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뒤 윤씨가 차고있던 목걸이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범행 후 "발작을 일으킨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겨달라"며 태연하게 119에 신고했으나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윤씨가 숨을 거둔 상태였다.

무직인 권씨는 수년째 간질을 앓아온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면서 자주 말다툼을 했으며,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권씨가 발작을 말리는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장애인 성추행범 경찰 기지에 '실토'

○…광주동부경찰은 2일 친구들과 사우나를 찾은 장애 여학생을 성추행한 조모(20·광주시 서구 농성동)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의 한 사우나 4층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지체장애 2급인 A(여·18)양을 남자 수면실로 끌고 간 뒤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는데 "배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몸을 더듬거나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발뺌했다는 것.

○…그러나 조씨는 담당 경찰관이 "혈기 왕성한 나이에 그럴 수도 있다. 당신이 형사라면 모르는 여성을 수면실로 데려가 이유도 없이 때렸다는 말을 믿겠느냐"고 안심시키자 범행을 시인.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